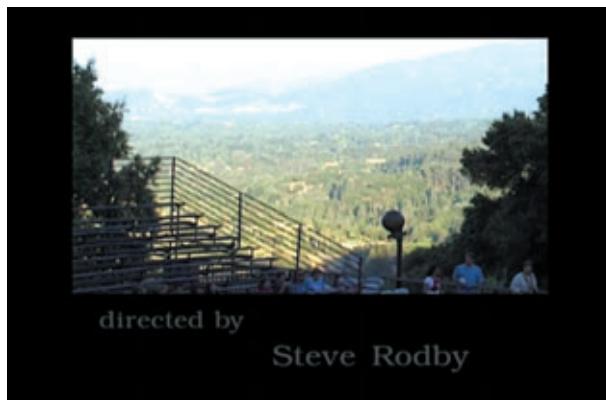




+ 정종완 · KBS 기술관리국 기술기획팀



[캘리포니아 위너리산 전경]

리리시즘의 미학

공연장은 캘리포니아 사라토가(saratoga.ca)에 위치한 위너리산(the mountain winery)에서 1998년 7월 21~23일까지 펼쳐졌다. 높은 산악지형의 휴양처 같은 분위기와 넓은 산 정상에서의 장관은 보는 사람과 연주하는 사람들의 눈들을 흥홀하게 만든다. 특이한 점은 무대의 뒤편건물이 'PAUL MASSON'이라는 와인바라고 한다.

회귀본능. 난 사람에게 가장 강한 본능이 바로 이 회귀본능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 가는 것도, 태어난 동네에 가서 살고 싶은 것도, 진정한 처음 사랑이었던 이에게 삶을 맡기고 싶은 것도, 원래 자기 성격으로 살고 싶은 것도...

팻 매스니(Pat Metheny)가 위너리 산을 찾은 이유도 필자가 이 음반을 다시 꺼내어 듣 것도 이 회귀본능일지 모른다.

“내 유일한 연주목표는 빨리 치거나 하는 따위가 아니라 진짜 멜로디를 뽑아내는 것이다.”

(My only goal of playing is not playing quickly and fast but making a soulful melody)

기타 신시사이저를 통해 80년대 초, 재즈뮤전계에 새로운 충격을 던졌던 팻 매스니는 능란한 솔로이스트(soloist) 중심의 애드립(adlip)을 지향하면서도 재즈씬(Jazz Scene)에 신시사이저 기타(Synthesizer Guitar)에 의한 색다른 표현방식을 보여주었다. 그간의 모드(mode) 중심의 임프로비제이션(improvisation)에 비해 그의 솔로는 멜로디의 아름다움과 색채적인 라인을 들려주는 이색적인 것이었다. 재즈연주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정연한 테마 멜로디가 지닌 아름다움과 서정성은 마치 한편의 영상 시를 연상케 한다. 그런 팻 매스니를 대중들은 기타 리리시즘(Lyricism)이라는 새로운 연주미학자라고 부른다.

그만의 독특한 연주스타일 때문에 팻 매스니는 정통 재즈계로부터 '이단'이라는 비난도 심심찮게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가 시도한 색소폰 소리를 빙불케 하는 기타 신시사이저의 레가토(legato)한 흐름과 진보적인 코드 보이싱(chord voicing) 등은 당시 재즈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분명했다.

현대적인 모더니티(modernity)와 쿨(cool jazz – 1948년경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내성적이며 약간 찬 듯한 느낌을 주는 모던 재즈이다. 열광적인 비밥(be' bop)에 대한 반발에서 생겨난 것으로 솔로와 양상들의 밸런스, 억제하는 듯한 정적인 연주스타일로 지적인 매력까지 풍겼다. 그리고, 1950년대에 성행했던 로스엔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백인 뮤지션들의 재즈. 즉, 웨스트코스트 재즈(서해안파 재즈)의 중심 이념이 되었으나 그 후 흑인 뮤지션들에 의한 이스트코스트 재즈가 성행하게 되자 유행이 한 물가기 시작했다)의 전통을 오히려 진보적인 방법론으로 해석한 팻 매스니의 기타는 명반 『Offramp』에서 절정에 달한다.

공연 음향 및 공연장 세팅

우연인지도 모르게 필자가 지난 호에 실었던 스티비원더의 음악감독이 베이시스트였던 것처럼 이번 팻 매스니 그룹의 음악감독 역시 베이시스트이다. 음악감독 및 편집까지 맡은 베이시스트 스티브 로드비(Steve Rodby)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렌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는 흔치 않은 클래식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팻 매스니 그룹의 음반 작업에서 모든 프로듀싱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장르의 음악에서 그리하듯 현란한 기교와 임프로바이제이션의 리드악기 속에서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조명 사이로 실루엣마냥 두꺼운 스트링을 틱기는 베이스연주자에겐 그래서 음악감독의 역할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듯 하다.



[베이시스트이자 음악감독을 맡은 Steve Rodby의 콘트라베이스 마이크 픽업 세팅]

이제 공연장의 음향과 악기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어느 밴드보다도 리드악기로서 팻 매스니에게 모든 포커스와 획일화 되어있다는 느낌이 다분할 것이다. 물론,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든 백그라운드의 수많은 타악기와 세션맨들의 화려한 플레이팅 기어(playing gear)가 있기에 PMG가 존재하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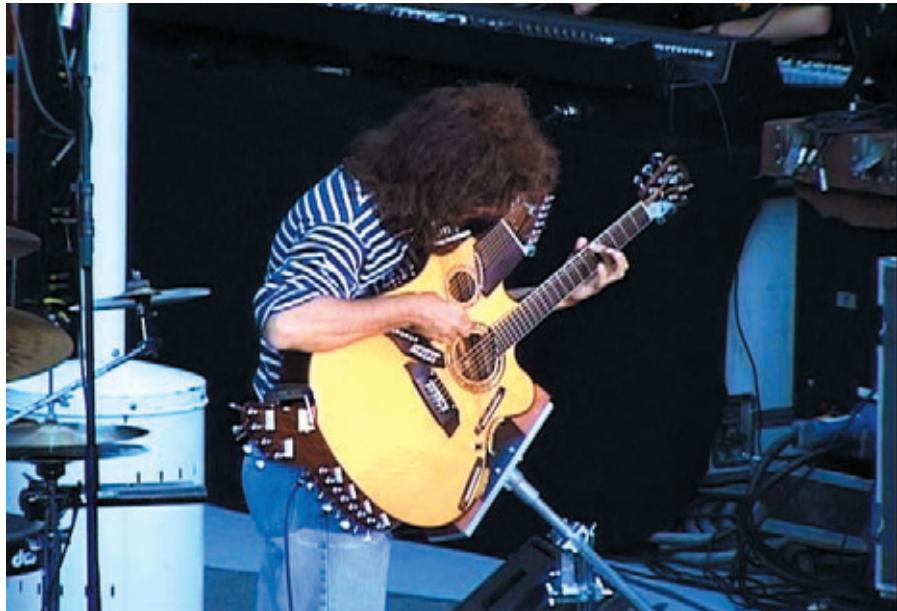
일단 팻 매스니를 위주로 장비와 음향세팅을 살펴보자.

◆ 팻 매스니의 공연 주요 장비

- Gibson ES175(58), Roland GR 300 Synthesizer Guitar, Guild 12현 기타,
Ibanez Artist Series, piccaso 12현 기타
- Digitech 2101 DSP guitar preamp
- Yamaha G100 Amps
- Lexicon Prime time Digital De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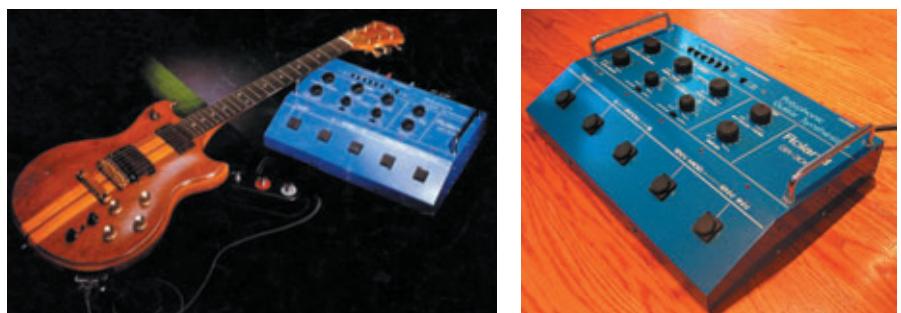
Linda Manzer Guitars
팻의 어쿠스틱 앨범 『Beyond the Missouri Sky』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12현 어쿠스틱 기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린다'라는 여성 기타제작가로부터 제작됐다. 본 'Imaginary Day' 라이브공연의 첫 번째 트랙인 "Into the dream"에서도 그의 화려한 12현 기타의 톤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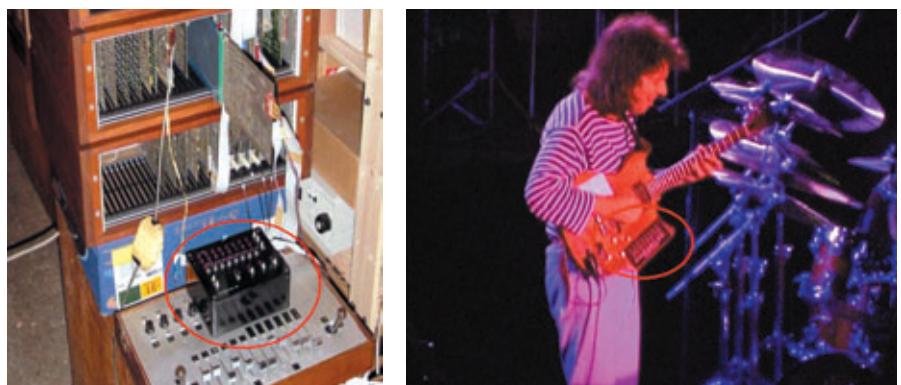
[팻 매스니의 12현 기타 연주모습(in Track1, Into the dream)]

Roland GR 300 Guitar Synth

70년대 후반의 제품으로 팻의 1982년 히트앨범『Offramp』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롤랜드의 초기 기타 신시사이저 모델로 현재는 생산되지 않고 있지만, 팻은 이 모델이 최근의 모델보다 더 음악적이고 터치와 느낌이 좋다고 한다. 팻 매스니는 기타 신시사이저를 통해 시타(sitar), 하모니카 등의 사운드를 사용했다.



[로랜드 GR300과 패키지 이펙터]



[팻 매스니의 커스텀 기타에 장착된 synclavier 컨트롤러]

Digitech 2101 DSP guitar preamp

Acoustic Amp가 고장이 나고 서비스가 불가능해지자, 팻은 Digitech사의 2101 DSP 프리앰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프리앰프로 벨소리나 휘슬 등의 소리도 표현이 가능해서 좋아한다고 한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지만 Digitech사는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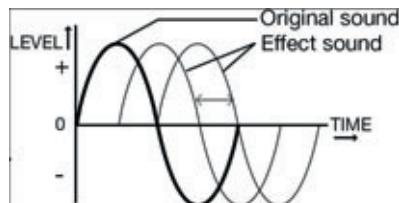


Lexicon Prime Time Digital Delay

팻 매스니는 Digitech의 프리앰프에 Lexicon사의 Prime Time Digital Delay를 두 개 걸어 사용하고 있다. 좌우를 다르게 딜레이를 걸어 스테레오 효과를 이용하는데 왼쪽은 14ms, 오른쪽은 26ns로 세팅하고 사용한다. 이 이펙트는 악간의 피치 쉬프팅 효과를 가지고 있어 두 개의 딜레이로 코러스 사운드를 내고 있다.



[서로 다른 타임딜레이를 위한 두 개의 Delay]



[피치 쉬프트 효과(phitch shifter)]



[팻 매스니의 우측으로 세팅되어 있는 아웃액의 Time Digital Delay와 pre-amp]

그의 연주 자체는 일렉 기타리스트라기보다는 클래식 기타리스트가 더 어울릴 법한 자체로 흉내 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정말 저런 연주 핑거자세여야만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해를 거쳐 유난히 서울 방문이 많았던 �эт 매스니의 공연은 분명 학구파적인 그러면서도 항상 기타플레이어들에게는 연구대상이 된다.

PMG의 1987년 적인 *『Still Life (Talking)』*에 수록된 곡인 *‘Last Train Home’* (지금 소개하는 *‘Imaginary Day’* 라이브 DVD’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곡)을 들어보면, 그의 이런 플레이를 엿볼 수 있다. 건반주자인 라일 메이즈(Lyle Mays)의 서정적인 피아노 보이싱과 기슴을 저미는 16bit의 베이스에 얹혀 진 �эт 매스니의 기타 신사사이저 소리는 가히 자연을 그 자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정말이지 집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조나단이 된 자유인이라고 할까.

콘서트 현장 스케치

이제 세계투어의 일환인 '상상의 날(imaginary day)'로 떠나보자.

공연 SET LIST

- | | |
|-----------------------------|------------------------|
| 1. Into the dream | 6. Message to a friend |
| 2. Across the sky | 7. Imaginary day |
| 3. Follow me | 8. September fifteenth |
| 4. The roots of coincidence | 9. Heat of the day |
| 5. A story within the story | 10. Minuano(six eight) |

공연장을 살펴보면, 무대에서 봤을 때 객석의 위치는 약간 오르막이며, 객석 정상부분은 잔디로 펼쳐져 삼삼오오 피크닉 나운 관객처럼 차가운 나무의자와는 다른 포근한 자연의 인자함을 펼쳐준다. 여기서 스피커어레이도 약간의 지향각을 통한 확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대에서 바라본 객석]



[객석 상단에서 바라본 무대]

무대의 전체적인 배치가 또한 독창적이며 특이하다. 2층으로 구성된 무대는 1층의 기타가 객석을 바라보고, 왼쪽의 건반은 기타를 바라보며, 오른쪽의 드럼은 또 기타를 바라보고 있다. 2층 상단의 두 명의 멀티 플레이어(PMG에서 이 두 명의 역할은 가히 대단하다. 백 코러스, 보컬, 백킹기타, 브라스, 퍼쿠션 등 PMG의 절반 이상의 음원을 담당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이시스트 리차드 보나(Richard Bona)도 PMG의 멤버였다면 믿겠는가?)가 객석을 바라보며 위치해 있고 그 옆에 퍼쿠션尼斯트가 자리 잡고 있다. 정리하자면, 기타리스트인 팻 매스니를 중심으로 모든 연주자들이 집중해 있으니, 보는 이나 듣는 이나 팻 매스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배치이다.



[무대 배치 및 악기 세팅 전경]

백 스테이지로 가보자. 여기엔 미국 남서부 광활한 대지에서 먼 지평선을 보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발자국이 고즈넉한 뒷골목이 등장하며, 'Pat Metheny Group'이라는 큰 간판의 클럽입구가 보인다.



[클럽의 백 스테이지 입구거리 풍경]

악기별 배치구도



[드럼과 기타 모니터링]



[백 코러스 및 리듬 기타]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인 퍼큐셔니스트]



[keyboardist 리얼 메이즈 건반]

글을 마치며

국내 청계천 해적판 가게에서 프로그레시브 락(Progressive Rock)의 대부라고 불리 우는 핑크 플로이드(Pink Floyd)의 앨범만큼이나 한국에서 재즈마니아들은 팻 매스니의 존재를 찾으려 애를 썼음은 비단 필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필자가 중학교 졸업반이었던 1988년 늦은 겨울, 생일선물로 둘째 누나한테 선물로 받았던 “어떤 날”이라는 우리나라 듀오밴드가 생각난다. ‘레드 제플린’을 통해 락음악과 팝을 듣게 된 나로서 왜 어떤날이라는 밴드를 듣게 되었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문세의 휴파림과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를 자주 듣곤 했던 필자에게 락보다도 오히려 리리시즘의 미학이 그러하듯 그런류의 음악이 각별했거나 보다. 한참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조동익과 이병우로 구성된 “어떤날”은 다분히 팻 매스니적인 음악을 들려주었던 국내 유일의 뮤지션들이었고, 그때서야 필자는 다운타운의 모 빠판(일명 해적판) 전문점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난다.

석양이 질 무렵 노을에 익어가는 수평선을 본적이 있는지, 한강변을 드라이브하며 강바람을 맞아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늦은 밤 비오는 거리를 혼자 거닐며 차디찬 음악을 들어 본적이 있는지. 감각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일 수도 있는 차기운 느낌.

서두에 회귀본능이란 단어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보며 필자가 꿈는 팻 매스니의 명곡 “Are you going with me?”의 감상에 젖어본다.

50의 나이를 넘어서 이제는 호기심보다 현명해짐에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팻 매스니에게 음악은 지치지 않는 호기심인 듯 싶다.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단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찾아 연주할 뿐이라면 세월은 그에게 주름살을 줬지만 분명 팻 매스니는 영원한 청년이다.

[참고]

- Pat Metheny Group 관련 인터넷 사이트 : <http://www.shumtoh.org>
- 참고서적 : 두산백과사전 “JAZZ” / 실림자식총서 “JAZZ”
- Pat Metheny best album
 - 〈Bright Size Life〉(76) : 첫 번째 솔로 앨범
 - 〈Offramp〉(82) : ‘Are you going with me’ 수록
 - 〈First Circle〉(84) : 싱글리비어의 도입
 - 〈The Falcon & The Snow Man〉ost(85) : ‘This is not America’(feat. David Bowie) 수록
 - 〈Still/ Life Talkin’〉(87) : ‘Last train go home’ 수록
 - 〈Letter From Home〉(89) : 남미 월드 뮤직의 도입
 - 〈We live here〉(95) : 서울 라이브
 - 〈Imaginary Day〉(97) : ‘Follow Me’ 수록